

광주 ‘마지막 노른자위’ 효천1지구 주인은?

입지조건 좋아 지역건설사-대형건설사 ‘눈독’

부동산 열기 후끈 ... 경쟁률 최소 150대 1 예상

‘광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당첨자는 누가 될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4일 공급공고한 광주시 남구 효천1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두고, 지역 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효천1지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풍암동, 봉선동 등과 연계돼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데다 광주에서 더 이상 공급되기 힘든 마지막 택지지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만 했다 하면 계약률이 100%에 근접하는 광주의 부동산 열기에 건설사들이 앞다퉈 추첨에 참여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효천1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

택용지는 2필지로, 효천역 바로 옆에 자리잡은 B1블럭과 B3블럭이다. B1블럭은 5만3580㎡, B3블럭은 4만4836㎡ 규모다. B1블럭은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884가구가 들어설 수 있으며 공급가액은 3.3㎡당 372만원 선이다. B3블럭은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740가구가 건립 가능하다. 공급가액은 B1블럭보다 저렴한 351만원 선이다.

효천1지구는 내년에 공급예정인 용산지구를 제외하면 광주권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혁신도시 및 신항개발지역과 기존도시의 중심 역할을 해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필지당 추첨방식이기 때문에 지역건설사와 광주의 부동산 열기를 아는 대형건설사 모두 접수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지역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주택건설사는 총출동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 광주에서 재미를 본 수도권 대형건설사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보유해야 자격 요건이 되지만 시행법인 숫자로만 300곳 이상이 참여해 최소 150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 용지는 부동산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 9월 말에야 토지사용시기가 되기 때문에 당첨되더라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요소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급가액이 다소 비싸진 만큼, 향후 당첨된 건설업체도 분양가

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과거 LH가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했던 효천2지구의 경우 3.3㎡당 210만~230만원 선이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되다보니 공급가액이 대폭 올랐다.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역건설사가 분양하면 3.3㎡당 890만원, 대형 건설사의 경우 950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한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효천2지구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가 2억4000만원 선이었으나 1지구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면 2억80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3억원을 넘나들 수 있다”며 “하지만 2년 후에도 광주이 부동산 열기가 현재와 같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동부대우전자 소형냉장고 ‘더 클래식’ 출시 동부대우전자가 8일 국내 최초로 120ℓ, 80ℓ급 소형 인테리어냉장고 ‘더 클래식(The Classic)’ 8종을 출시했다. 신제품 냉장고는 기존 냉장고와는 달리 크림화이트와 민트그린, 레드, 블랙 등 화려한 컬러를 적용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광주·전남 상장기업

매출·당기순이익 호전

광주·전남 상장기업들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장법인 중 12월 결산법인 13개사(유가증권)를 대상으로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5조1517억원으로, 전년보다 0.42%(214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3041억원에서 3072억원으로 31억원(1%) 늘었고, 순이익도 1042억원에서 2301억원으로 1259억원, 비율로는 120% 증가했다.

이처럼 영업실적이 증가한 것은 금호타이어(순이익 1125억원)와 금호산업(666억원)의 흑자폭이 커 전체 상장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18일 워크아웃 졸업할 듯

채권단 승인쪽 의견

노사 임단협은 난항

연내 워크아웃(기업개선펙) 졸업이 확실시 되는 금호타이어에 대해 채권단이 오는 18일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4일 40개 채권기관 중 3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사평가 보고서 설

명회를 열고, 논의 끝에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을 승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2년 연속 경상이익 실현 및 안정적 순이익 유지 전망 ▲자재신용으로 정상적 자금조달 ▲주요 경영목표 2년 연속 달성 ▲부채비율 200% 이하 ▲잔여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 등 5가지 조건 가운데 4가지를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금호타이어의 부채 비율은 2010년 858%에서 올해 상반기 290%로까지 낮아졌으며, 신용등급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되는 등 워크아웃 졸업 요건을 갖췄다. 또 유일하게 미충족된 잔여채무의 경우도 ‘2년 상환 유예, 5년 분할상환’으로 대체, 조건부 졸업시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은 2주일 안에 졸업 동의 여부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알려야 하고,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졸업이 가

능하다. 일정상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여부는 이르면 18일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워크아웃 졸업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와 달리 올해 노사 임단협은 난항에 부딪혔다. 노사는 최근 27차 본교섭을 갖고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노조 관계자는 “워크아웃 졸업이 가시화된 만큼, 지난 5년간 제약했던 모든 근로조건을 철회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8일 실무교섭에 이어 10일 28차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78.95 (-7.67)

▲ 금리 2.22% (+0.05)

▲ 코스닥 551.40 (+0.55)

▲ 환율 1117.70원 (+3.60)

지역 백화점 겨울 세일 ‘꽂꽂’

광주 신세계 매출 3.3%, 롯데 6.1% 감소

광주 지역 백화점들이 적극적인 할인공세에도 꽂꽂인 소비심리를 녹이지 못하고 세일 매출이 뒷걸음질 쳤다.

8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동시에 겨울정기 세일에 들어갔지만 두 곳 모두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이번 겨울 정기세일 실적이 지난해 실적보다도 3.3% 감소했다. 세일 초반에는 매출신장을 이 전년 동기대비 -7.8%까지 줄여들면서 크게 부진하기도 했다. 매출신장을 감소시킨 품목은 아웃도어(-21.1%), 생활(-16%), 여성패션(-10.6%) 등으로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겨울 정기세일 매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6.1%나 감소했다. 겨울 패딩이 주력 상품이 아웃도어의 매출이 전년보다 약 15%가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단가가 높은 겨울 외투를 판매하는 남성

정장 상품군도 11%가량 매출이 낮아졌다.

백화점측은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세일기간 초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우터 의류 수요가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반적인 매출 하락 기조 속에 매출이 오른 품목도 있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골프 관련 상품(13.7%), 식품장르(13%), 명품잡화(6.9%)는 예상 밖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윤달을 피해 겨울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 부부들로 인해 가전 및 가구 혼수 상품군이 11% 가량 신장했다. 겨울철 보습 관련 제품의 판매 호조로 화장품이 약 8% 높아졌으며 건강식품군의 매출도 전년 대비 16% 정도 올랐다.

광주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이달 들어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예측돼 향후 다양한 시즌 마케팅 활동과 상품 물량 확보로 매출신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 중기 융자금 2100억으로 확대

내년부터... 금리도 인하

전남도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융자금 규모를 2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자체 조성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은행 자금도 115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1500억원에서 무려 6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또 기업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기업들이 건의한 융자 한도 상황과 이자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경쟁력 강화자금은 12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0억원까지 융자 폭을 넓혔다.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창업자금도 종전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남도는 융자금 지원 기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 이율을 3.41%에서 3.0%(벤처기업은 2.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 자금을 활용해 경영 안정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이자 지원도 지난해까지 2.0~2.5%에서 내년부터 2.5~3.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도 집중 지원한다. 내년부터 전남의 대표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추진하는 ‘강소기업’은 2년간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한도를 20억원까지 늘린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8년으로 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및 벤처기업이 담보 부족이나 신용도가 낮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 50억원 규모의 ‘전남 엔젤 투자 매칭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자 4억 포함, 보 1억에 월 340만원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오피스텔 “매매”

- 29평 - 12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양동 하천 방향, 20층중 12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원룸형 매매가 - 6,500만원

- 53평 - 13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은, 20층중 13층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가 - 1억7,000만원

- 77평 - 20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창가, 코너, 전망좋은, 최상층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 2억7,000만원

주인직매, 010-3180-8900